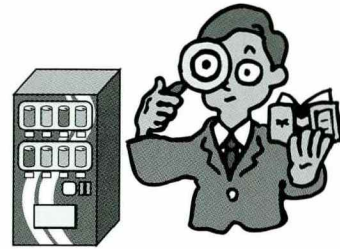


## 천태만상, 자판기 세상 속으로



### 학교 매점 및 자판기 탄산음료 못판다

내년부터 공중파와 케이블, 위성 등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미끼 상품이 든 과자와 음료, 패스트푸드의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이르면 올해 안에 각급 학교 구내매점에서 탄산음료 등 당분 과잉음료의 판매 및 조리가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종합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식약청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는 적정한 기준치를 초과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당이나 지방 등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광고를 어린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오후 9시 이전에 방송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 중으로 학교 주변(200m)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학교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탄산음료나 지방이 많이 든 과자나 패스트푸드를 팔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와 부모 등이 영양성분 함량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영양성분 함량 정도에 따라 빨강(고함량), 노랑(중등 함량), 초록(저함량) 등의 색깔로 표시하는 영양성분 신호등 표시제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2010년부터는 대형매장을 갖추거나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는 외식업체에 대해 영양성분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식품첨가물의 경우 올해 안에 어린이 다소비식품에는 타르색소 적색2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2008년까지 보존료와 산화방지제, 인

공감미료 등의 섭취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 "이웃사랑도 티끌 모아 태산"

자판기 수입 전액 기부 부산진구 남해횃집 이창욱 대표



3년 모은 동전 등 총 220여만원 장애인단체에 기부

'본업소 자판기 수입금 전액은 좋은 곳에 사용할 것을 고객 여

러분께 약속합니다.'

부산 부산진구 양정1동 남해횃집(대표 이창욱)이 고객과의 약속을 지켰다. 지난 3년간 공짜 커피값으로 내놓은 고객의 기부금(?)을 개봉하자 식탁 하나를 죄 차지했다. 부산장우신협의 협조를 얻어 계수가 끝나자 100원짜리 동전 1만1천921개, 10원짜리 동전 912개, 1천원권 지폐 761장, 50원짜리 동전 514개 등 모두 220만920원이었다.

"손님들께 커피를 공짜로 대접했는데, 일회용컵을 못쓰게 하는 바람에...구청에 적발되면 벌금도 물어야하고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횃집 주인 이씨는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이다. 하지만 다소 놀라는 인상이었다. "막상 꺼내놓고 보니 의외로 많네요. 저희 가게를 이용해주시는 손님들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도와주신 셈이라 기분이 좋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째 특별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31일이 있는 달의 그 31일 수익은 모두 장애인단체에 희사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덤으로 얻은 하루를 이웃을 생각하고 실천한다는 각오에서 비롯됐다. 또 홀수달의 마지막 주 월요일을 '장애인 후원의 날'로 정해 이웃사랑을 정례화하고 있다.

남해횃집으로부터 손님 커피값의 '티끌 사랑'을 건네 받은 하사가장애인상담넷(원장 이복남)은 설을 앞두고 1급 중증장애인 2명의 치과치료비로 각 50만원씩, 장애인대학생 및 장애인자녀대학생 2명에게 장학금으로 각 50만원씩 등을 전달해 '태산 사랑'을 실천할 예정이다.

### 가수 이재훈, 자판기에 깔린 덕분에 가수 데뷔?

유학 떠나기 전 발로 차다 사고... 수술로 유학 무산 후 쿨과 인연

쿨의 이재훈이 가수의 길을 걷게 된 황당한 사연을 소개했다. 이재훈은 "쿨이 되기 직전이었던, 15년 전 해외 유학을 가려고 했었다"며 "유학을 떠나기 2~3일 전 친구들과 함께 송별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날 사고가 터졌다.

사고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이재훈은 송별회를 마치고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들과 강남 모 백화점 앞의 담배자동판매기에서 담배를 사기 위해 돈을 집어넣었다. 그러나 담배가 안 나오는 일이 발생했고 이재훈은 술김에 자동판매기를 발로 찼는데 담배 2~3갑이 한꺼번에 나왔다. 여기에 흥미를 느낀 이재훈이 다시 한번 자동판매기를 발로 찼을 때 자동판매기가 그만 넘어지며 이재훈을 덮치고 말았다.

이재훈은 이 사고로 인해 양 발의 복사뼈가 으스러져 수술을 해야 하는 대형사고를 당했다. 결국 유학은 무산됐고 당초 가수가 될 생각은 꿈에도 없었던 이재훈

은 쿨에 합류하게 됐다.

이재훈은 "당시 하느님께서 내가 가수가 되라고 발목을 잡은 것 같다"면서 "내 인생은 자동판매기로 시작됐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는 이어 "그때 일어났던 사고 때문에 그 백화점 앞의 담배자동판매기는 사라졌고 나는 해외에 나갈 일만 있으면 그 전에 항상 사고가 터져 못나가곤 했다"는 후일담도 함께 전했다.

### 서울 산업대, 200원짜리 '달콤한 삼순이 커피' 인기

'삼순이 한 잔 어때?'



2005년 여름 대한민국 2030세대를 울리고 웃겼던 인기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이하 김삼순)이 200원짜리 커피로 부활(?)했다.

서울산업대 캠퍼스 곳곳에 설치된 커피 자동판매기에는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버튼(사진)이 달려 있다. 다른 메뉴와는 달리 자판기 운영자가 직접 올려붙인 '이름표'가 달려 있다.

드라마 '김삼순'의 열렬한 팬이었다는 자판기 관리인 백필규씨(37·남)는 "TV를 보다가 '삼순이 커피' 아이템을 생각해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김삼순'은 무슨 맛일까. 백씨는 '삼순이 커피는 카페오레인데 다른 커피보다 약간 더 달콤하게 배합했다'고 말했다. 다른 메뉴는 모두 150원이지만 '김삼순'은 유일하게 200원짜리다.

드라마는 조금씩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지만 '김삼순 커피'에 대한 학생들의 애정은 여전히 뜨겁다.

### 커피전문점, 캠퍼스 '자판기'에 도전?

2004년 스타벅스 고려대점 이어 CJ푸드빌 투섬플레



### 이스 서울대 입점

스타벅스 등 대형 커피전문점이 '길거리 카페'를 점령한 가운데 그간 대표적인 '체인점 청정지역'인 대학 캠퍼스에도 커피전문점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 2004년 10월 스타벅스가 국내 최초로 고려대 캠퍼스에 입점한데 이어 CJ푸드빌의 투썸플레이스가 서울대에 매장을 냈다. GS25, 미니스톱 등 편의점이 학내 입점돼 있긴 하지만 대형 커피전문점이 캠퍼스에 문을 열기는 스타벅스에 이어 두번째다.

스타벅스가 고려대에 매장을 처음 오픈할 당시, 스타벅스가 갖는 미국식 자본주의라는 상징성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 논란이 컸다. 지나친 상업화에 반대하는 일부 학생들이 스타벅스가 입점돼 있는 건물 유리창을 파손시킨 사건까지 벌어졌었다. 또 자판기 커피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커피 가격 때문에 캠퍼스내 위화감 조성 논란도 상당했다.

### 김해시, 모범주유소 인증에 있어 자판기 설치여부도 확인

경남 김해시가 도로변에 있는 주유소의 환경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모범주유소 인증제'를 도입, 시행에 들어간다.

4월 6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주요 도로변에 있는 주유소(LPG충전소 포함) 175곳을 대상으로 제1회 모범주유소 인증제를 시행키로 하고 대상업소 선정작업을 추진 중이다.

시의 이번 인증제 시행은 대부분 도로변에 소재한 주유소가 도시미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잘 정비하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도 높은 주유소를 선정함으로써 김해의 이미지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정유사, 주유협회, 시민단체, 공무원 등

의 모범주유소 선정위원회를 구성, 오는 10월까지 정량 정품 판매, 가격표시제 준수, 노후시설 도색,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고객 휴게실과 음료자판기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11월께 10곳의 모범주유소를 선정해 표창과 인증패를 전달할 방침이다"며 "시가 선정한 모범주유소는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자판기 관련 사건사고 >>

'노래 잘 부르게 하는 약' 자판기 돈 된다" 수익원 챙겨 서울 송파경찰서는 건강보조식품 자판기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김모씨(45) 등 2명을 구속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노래 잘 부르게 하는 약'이 나오는 자판기를 설치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고 이모씨(46)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8백50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 1월까지 62명으로부터 모두 5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자판기가 설치된 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인터넷과 전국의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고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과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자판기 임대 관리 사업자를 모집한다며 사람들을 모아 109명으로부터 10억여원을 가로챈 사기단이 붙잡혔다.

### 자판기 5억대 사기범 검거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4월 6일 자판기 임대사업을 등을 미끼로 사람들을 모아 보증금 등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H(39·전 S인터내셔널 영업부장)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K씨등 5명을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 등 7명은 2006년 5월께부터 S인터 내셔널이라는 회사를 차려놓고 전국의 생활정보지와 회사 홈페이지에 "자판기 임대 관리하실 프리랜서 및 무점포 소자본 창업자를 모집합니다"는 광고를 냈다. 이들은 두 달뒤 사무실을 찾아온 L(46)씨에게 자판기 설치 보증금 명목으로 850만원을 받는 등 2007년 1월 12일까지 62명으로부터 5억6589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한 후 사기 행각이 발각되면 '바지사장'만 구속되게하고 자신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는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그러나 "사장이 시켜서 모든 일을 했을 뿐이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자판기 전문털이범 검거

자판기만을 전문적으로 털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지난 4월 11일 대전 시내를 돌아다니며 커피자판기만 골라 100여대를 털어 금품을 훔친 임모씨(35)와 김모씨(32)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2시쯤 대전 동구 성남동 한 음식점 앞에 설치된 커피자판기 잠금장치를 부수고 동전 5만여원을 훔치는 등 올해 초부터 대전 전역을 돌며 100여대의 자판기에서 모두 5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전역에서 노숙을 하다 만난 사이로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시작했으며 훔친 돈으로 여관에서 기거하며 매주 두세 차례씩 서너 곳의 자판기를 털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나는 귀후비개로 자판기 터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철제 귀후비개를 이용해 커피자

판기의 문을 딴 뒤 현금을 훔친 혐의로 윤모씨(2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28일 밤 10시 50분쯤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승강장에 있는 커피자판기에서 현금 20여만원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12차례에 걸쳐 모두 33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윤씨는 스테인리스로 만든 귀후비개를 자판기 열쇠 구멍에 넣어 문을 연 뒤 현금을 훔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전문 자판기 털이 10대 영장

전문적으로 자동판매기를 털어 온 10대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19일 상습적으로 자판기를 털어 온 김모군(19) 등 3명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군 등은 지난 17일 새벽 1시10분께 진주시 이현동 모 마트 앞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동전과 지폐 등 4만원을 빼내는 등 마산과 창원, 진주지역에서 40여차례에 걸쳐 3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으나 자판기의 경우 피해금액이 적어 피해자들의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 피자도 자판기에서 뽑아 먹자!...伊서 피자 자동판매기 출시

이제 피자도 담배나 음료수처럼 자동판매기에서 사먹는 시대가 왔다. '베스트 이탈리아 피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최초의 자동판매기 피자 이름은 '원더 피자 이태리(Wonder Pizza Italy)'이다. 토리노에서 기획되었으며, 7년의 기간에 걸쳐 천만 달러 이상이 투자되었다. 본사는 오스트레일리아 남부의 Payneham



South에 두고 있다. 냉장고처럼 큰 덩치의 자판기에는 총 102개의 피자가 들어갈 수 있으며, 주문 시간을 포함하여 지름 23cm의 피자가 단지 90초 만에 오븐에서 꺼내진다. 마르게리타, 슈프림, 하와이 세 가지 종류

를 선택할 수 있다.

제품은 전기로 구워지는데, 마이크로웨이브 기술은 사용되지 않는다고 설계자들은 보증하고 있다. 피자 하나의 가격은 5달러이다.

피자 자판기는 빠른 시일 내에 미국과 유럽, 중동 지역과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에 보급되어질 것이며 공항, 병원, 대학, 사무실, 경기장, 지하철, 무역센터 등 어떠한 곳이든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는 이미 'Wonder Pizza Usa'라는 상표로 제출되었고, 스페인, 그리스, 멕시코,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피자 자판기 출시가 그동안 피자헛이 독점하다시피한 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 시장에서 견제 역할을 할 것으로 일부 기대된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피자 요리인들과 2004년 'Specialita Tradizionale Garancia(STG)' 품질마크를 획득한 나폴리 피자를 자랑스러워하는 나폴리인들, 그리고 맛있는 피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반갑지 않은 소식이 될 것이다.

## 브라질 보건성, 학교에 콘돔 자판기의 설치를 추진



▲ 사진은 상파울로에서의 퍼레이드로 무료 배포된 콘돔. 2005년 5월 촬영 (2007년 로이터)

지난 2월 6일, 브라질 보건성은 학교에 콘돔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계획을 추진해 갈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조사에 의하면 부모의 3분의 2는, 정부가 10대의 청소년에 대해서 콘돔을 무료 배포해, 성병예방을 실시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동보건성은 에이즈 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일부의 학교에 대해 10년 이상에 걸쳐서 콘돔의 무료 배포와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성병 유행 예방의 성공예로서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번 얻은 조사 결과를 기본으로 콘돔 자판기 설치에 대한 일부 비판을 완화시키고 싶은 의향이다.

또 콘돔 배포를 보급시키기 위해, 최근에는 공업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콘돔 자동판매기의 디자인 콘테스트에도 나서 있어 최우수 작품에는 2만5000 달러(약 300만엔)의 상금을 수여한다고 하고 있다.

콘돔 자동판매기는 빠르면 2008년에도 학교에 시험적으로 설치되어 앞으로 바나 24시간 영업의 주유소 등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네스코의 조사에서는 브라질에서는 13~19세의 학생의 45%가 활발한 성관계를 하고 있어, 이 중 60~70%가 피임 또는 에이즈 등의 성병 예방에 콘돔을 사용하고 있는 일도 밝혀지고 있다.